비교문화연구 제22집 1호, (2016) pp. 435~483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말아파트’와 공동체:
이스라엘 내 필리핀 노인 돌봄 노동자의 이주 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

임안나**

본 논문은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필리핀 단기노동 이주자들이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를 형성시키는지를 공간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일상적으로 고용주의 집에 머무르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주말이 되면 텔아비브 네베셰아난에 위치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수행한다. 필자는 우선 필리핀 이주민 사회에서 이러한 아파트가 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요구하는 최소단위의 공동체공간으로서 ‘내부-외부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주민들이 다양한 공간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아파트가 어떻게 쉘터이자 해방의 공간으로 기능하는지를 기술한다. 또한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필리핀 이주자들이 필리핀인이자 노인돌봄노동자로서의 공통의 이해와 지위를 기반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다중적인 정체성과 차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의 공간이며,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파트가 단순히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고 타자화된 이주민 엔클레이브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외부세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임을 강조한다.

〈주요개념〉: 필리핀 노인돌봄노동자, 아파트, 공간, 경계만들기, 엔클레이브, 공동체, 이스라엘

---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강원대학교 시간강사(modicum@hanmail.net)

1. 서론

이 글은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필리핀 단기노동이주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지위와 주변적인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를 형성시키는지를 공간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전지구화의 영향으로 이주연구에서는 이주자들이 국가 경계를 가로지르며 맺는 장소와 공간 개념을 재고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기해왔다(Appadurai 1995, 1996; Cresswell 2004; Faist 2000; Gupta and Ferguson 1997; Levitt and Glick Schiller 2004; Low and Lawrence-Zúñiga 2003; Marcus 1998; Massey 1994; Olwig 2009; Rodman 1992; Smith 2001). 이러한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은 장소를 더 이상 분리되고 독립된 공간으로서 단순히 이주자들의 새로운 활동무대의 배경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 이주자들이 외부세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공간으로 보는 것이다(Rodman 1992). 예를 들면, 매시(Massey 1994)는 '글로벌 장소감(global sense of place)' 개념을 제시하면서 어떤 장소의 특수성은 그것을 둘러싼 다른 장소들 및 사회적 과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의해 상이하게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이주 연구가들은 이주자들이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거주국 내에 새로운 로컬리티를 만들어내는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 과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물리적 장소에 제한받지 않되 장소에 기반을 두어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자의 삶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기엘리스(Gielis 2009: 275)는 "모든 사회적 연망은 최소한 하나의 특정 장소에 착근된다."고 강조하면서, 독일과 네덜란드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네덜란드 이주자들의 복합적인 이주 연망을 집이라는 '장소 렌즈'를 통해 포착해내고자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이클 스미스(Smith 2001: 3)는 "이주자의 초국적

사회관계가 하나의 장소에 천착되어 나타나지만 동시에 초지역적 상호작용의 순환 속에서 다른 장소들과 접합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주자들의 초지역적 장소 만들기 실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특히 가사노동자들이 거주국의 구체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는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Hochschild and Ehrenreich 2003; Hondagneu-Sotelo 2001; Lan 2003; Mahler and Pessar 2006; Oishi 2005; Parreñas 2000; Sassen 1999). 이주 여성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사적 영역에서의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고용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Arat-Koc 1989; Bakan and Stasiulis 1997; Cohen 1986; Romero 1992 참조), 좀 더 최근의 연구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주여성들의 주체적 서사에 주목하고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정착국의 도시 경관을 변형시키는가에 관심을 둔다(Lan 2003; Law 2001, 2002; McKay 2005; Parreñas 2000; Peralta 2004; Yeoh and Huang 1998).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필리핀 입주 가사노동자를 연구한 여와 황(Yeoh and Huang 1998)은 이주여성들이 휴일인 일요일마다 공공장소를 기반으로 거주국의 도시경관을 이질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러한 공간을 '주말엔클레이브(weekend enclave)'라 명명한다(임안나 2015: 103-104).

이처럼 최근의 이주 연구는 이주노동자들을 공간형성의 행위자로 포함시키면서 로컬리티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나 장소 만들기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주민을 단일하고 동질적인 종족집단으로 상정하고 하나의 분석 단위로 연구대상화 하는 경향이 있다. '방법론적 국가주의(Glick Schiller and Çağlar 2009)'[1]는 이주민들이 거주국에서 형성

1) 글릭 쉴러와 살라자르(2013: 191)는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하나의 사회를 민족국가 경계에 일치시키고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역사, 가치, 사회적 관습과 제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결국 정체를 일반화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시키는 이주 공간을 동질적이고 고정된 정적인 공간으로 봄으로써 이주민들의 다양한 사회관계와 복합적인 삶을 포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주자들이 새로운 정착지 환경에서 사회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적응해 나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민족과 영토의 경계에 제한받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이주자들과 그들의 문화적 실천이 다층적인 스케일 속에서 다중적인 공간적 연망의 일부가 되는 다양한 방식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글릭 쉴러와 살라자르(Glick Schiller and Salazar 2013)의 주장은 이 연구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스라엘 노인돌봄 영역에 유입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데이오프(day-off)가 주어지는 주말마다 특정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현상에 주목하고, 입주근무 조건과 불안정하고 주변적인 체류 지위에도 불구하고 거주국에서 새로운 장소성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살펴본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필리핀 이주자들은 주중에는 고용주의 집을 기반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다른 필리핀 이주자들과 교류하는 한편, 주말에는 주로 이주민 집거지가 형성된 네베셰아난의 다양한 공공장소, 따갈로그 미사가 제공되는 성당이나 교회, 그리고 소속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회적 연망을 확대시키거나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2] 하지만 이 논문에서 아파트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위에 언급된 여러 공공장소들과 달리 필리핀 이주자들이 특정 아파트에 귀속되어 이러한 사적공간을 기반으로 경계가 비교적 뚜

2) 필자가 현지조사기간 중에 만난 많은 필리핀 이주자들은 크리스마스와 자신의 생일을 제외하고는 성당에 가지 않았으며, 매주 참석한다 하더라도 종교모임에 참석한다거나 성당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망을 구축하는 것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다만, 성가대나 사제 집단에 속한 특수한 경우 종교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배타적인 아파트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례는 발견되었는데, 필자가 입주할 아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파트에 입주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렷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이 공존하는 네베셰아난 지역(Neve Sha'anan neighborhood)에 위치한 아파트는 필리핀 이주민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그룹 단위인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필리핀 이주민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렌즈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텔아비브 네베셰아난의 아파트는 텔아비브 고속버스터미널, 네베셰아난 벼룩시장, 르빈스키 공원과 더불어 필리핀 이주자들이 거주국의 도시 경관을 변형시키는 구체적인 장소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구체적인 장소는 이용자들의 '실천'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추상적이면서 역동적인 공간으로 형성된다. 드 세르토(de Certeau 1984)가 표현한 것처럼 "어떤 물리적 지점에 하나의 위상만이 부여되는 장소와 달리 공간은 다양한 요소들이 교차하며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의해 변형되는 성격을 지닌다(정헌목 2013: 114)". 우선, 이 논문에서는 주말에 아파트에서 실천되는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두고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회적 연망과 질서를 구축하는 독특한 엔클레이브 공간으로 변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아파트가 단일하고 동질적인 에스닉 공동체를 수용함으로써 외부와의 뚜렷한 경계를 가지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장소가 아니라, 필리핀 이주자들이 외부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와 맥락이 생산되는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적 공간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6개월에 걸쳐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남쪽에 위치한 네베셰아난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스라엘의 경제, 상업 중심지인 텔아비브에 위치한 네베셰아난은 이주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이스라엘 최대의 이주민정착지와 서비스 기반시설이 형성된 곳이다. 필자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입주하여 주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비공식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아파트의 구성원으로

〈표 1〉 필드워크 수행을 위해 필자가 체류한 아파트의 사회인구적 특징

	리나 아파트	바네사 아파트	리자 아파트	그레이스 아파트
필자의 체류기간	2010. 1. 1~ 2010. 6. 10 (총 5개월)	2010. 7. 10~2011. 3. 30 (총 9개월)	2011. 4. 1~ 2012. 1. 31 (총 10개월)	2012. 2. 1~ 2012. 3. 30 (총 2개월)
평균거주자수	25	10	12	10
남성거주자수	3	1(이집트 난민)	4	0
불법체류자수	2	0	4	2
출신지[3]	팡가시난	비사야	일로코스	바탕가스
주요 연령대	30대 후반~40대	40대	30대 후반~40대	40대~50대
주요 종교	로마카톨릭 (절반만 미사참석)	로마카톨릭 (미사참석은 안 함)	로마카톨릭 (미사참석은 안 함)	로마카톨릭 소수의 개신교
주요정보 제공자	루시, 주디, 톰	바네사, 네를로스, 자스민, 아날린	조이, 리자, 테리, 제니퍼, 게리	그레이스, 리사, 샐리, 아나, 제니
비고	두 쌍의 커플	한 쌍의 커플	네 쌍의 커플	한 쌍의 커플

서 거주하면서 모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자들의 주말 생활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정보제공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조사를 위해 필자가 체류한 아파트는 모두 네 곳으로, 필자의 아파트 간 이동은 아파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필리핀 이주자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아파트 간 이동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해 본 논문에 사용된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3) 한 아파트는 보통 다양한 지역 출신의 거주자들로 구성되지만 이 표에서는 주요 지역 한 곳만 표기했으며,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이 필자에게 제공한 지역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유대인국가’의 이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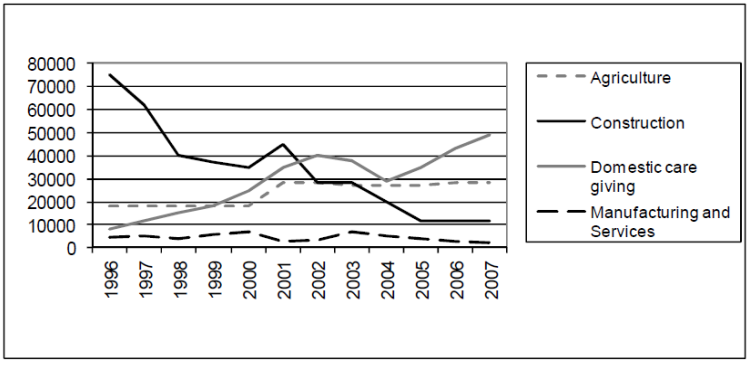
1)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법적 지위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이상에 뿌리를 두고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되면서 귀환법(Law of Return 1950)에 의거 전 세계로부터 유입되어 온 유대인 이민에 바탕을 둔 이민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귀환법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분을 기준으로 유대인에게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반면 비유대인의 체류와 정착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민국가가 아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정착한 유대인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인 ‘올레(올라가는 자)’[4]와 비유대인 이주노동자들을 일컫는 ‘오브딤 자림(외국인 노동자)’은 이스라엘에서 일시적인 체류자로서만 수용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변적인 위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프타헬(Yiftachel 2006)은 그의 저서 ‘에스노크라시(*Ethnocracy*)’에서 이스라엘은 민주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국가자원 배분에 있어 시민권(territorial citizenship)이 아닌 종족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정한 인종집단을 다른 집단들보다 우위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종족주의 통치체제가 작동하는 종족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적한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의 결과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국내 경제가 성장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자 팔레스타인인들을 자국 노동시장의 최하층에 편입시켰다(Semyonov and Lewin-Epstein 1987). 하지만 1987년 제1차 인티파타 발발과 1993년 오슬로

4) 이스라엘에서 이주(immigrant)라는 용어는 학술적인 영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대신, 해외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해 정착하고자 하는 유대인은 ‘올레(oleh, 올라가는 자)’라고 일컬어지며, 이스라엘에서 다시 해외로 재이주하는 경우에는 ‘예리다(yerida, 내려가는 자)’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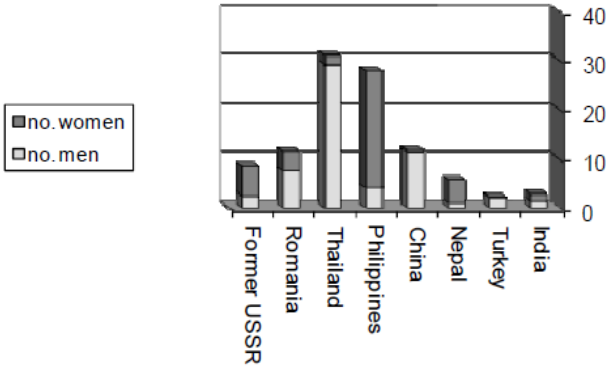
협정의 여파로 가자지구가 봉쇄되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부딪히게 된 이스라엘 정부는 루마니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농업,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 채용하기 시작했다(Batram 1998).[5] 1996년 이스라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외 인력의 75퍼센트가 건설현장에, 7퍼센트가 노인돌봄 서비스직에 투입되었으나, 2010년이 되면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수요의 증가로 노인돌봄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의 28%를 차지하게 된다(Natan 2012). 노인돌봄 노동자와 농업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주노동 시장의 국적 구성비 역시 변화하였다. 201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돌봄 서비스영역은 주로 필리핀, 건설은 중국, 농업은 태국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며, 직업별 성비구성은 2010년 신규 채용된 태국인노동자의 94%와 중국인노동자의 96%가 남성이고 필리핀노동자의 87%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Kemp 2010: 9)(〈그림 1〉과 〈그림 2〉). 2010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미등록체류자 포함 총 211,500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이스라엘 전체 노동력의 10%에 해당된다(Natan 2012).



〈그림 1〉 고용분야에 따른 고용허가 수의 변화 1996~2007(Kemp 2010: 9)

5) 1987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매일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수는 약 11만 명으로 이스라엘 전체 노동시장의 8%를 차지했다(Batram 1998: 306-307).

2007년 말 기준, 단위: 1,000



〈그림 2〉 국적/성별에 따른 이스라엘 체류 이주노동자 수(Kemp 2010: 10)

다른 노동력수입국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주노동자들을 일정 기간에만 존재하는 '상품화된 노동력'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외국인인력의 자국 정착을 규제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의 동반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데다 다른 노동시장으로의 이입이 제한되고 특정 고용주의 동의하에서만 체류비자가 매년 연장되는 바인딩시스템(binding system) 하에서 그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가 구조적으로 결정된다. 2006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새로운 형태의 근대적 노예제'라고 지적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입국 후 51개월 이내에는 재취업을 허용하는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체류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5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고용주가 사망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노동자의 체류권한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작업 조건은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임안나 2015: 112-113).

역설적이게도,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행된 바인

딩시스템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스라엘노동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의 60%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에 미등록체류자 상태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된다(Kemp 2010: 7). 대부분이 고용허가를 받고 이스라엘에 입국했지만 열악한 작업조건을 피해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체류지위를 상실했다(Kemp and Raijman 2004; Lim 2015; Willen 2003, 2006). 여성의 경우 출산과 동시에 자녀와 함께 미등록체류자로 전환되기도 한다. 필자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체류기간 동안 출산하여 아기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해당 여성의 체류권한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아기와 함께 미등록체류자로 남기로 결심했다. 미등록체류자로 전환되는 수가 급증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2년 이민경찰국을 출범시키고 2009년에는 이민경찰국을 내무부 산하로 이동시키면서 대대적인 단속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2) 필리핀 노인돌봄노동자

필리핀 이주자들이 처음 일자리를 찾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은 1980년대에 개별적으로 관광 비자를 통해서 입국한 뒤에 무비자로 장기체류하거나, 홍콩이나 미국의 가정집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다 고용주를 따라 이스라엘로 재이주한 경우였다(Liebelt 2011: 19). 하지만 1995년 이후 단기계약채용에 기반을 둔 해외인력 도입 시스템 하에서 필리핀 이주자들이 노인돌봄 영역에 활발하게 채용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2006년부터 노인돌봄 영역에 네팔, 인도, 스리랑카, 동유럽(루마니아, 몰도바) 출신 노동자가 채용되기 시작했지만 필리핀 출신이 여전히 압도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Kav La'Oved 2010)(〈그림 2〉). 1996년에 입국하기 시작한 노인돌봄노동자들은 근무형태 선택에 제한이 없었

지만 2010년 개정된 법은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노인돌봄 노동자를 고용주의 집에 입주하는 리브인(live-in) 근무 형태로만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Mundlak and Shamir 2014: 96). 규정상 리브인 돌봄 노동자의 업무시간은 저녁 7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명확하게 규정된 근무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이주 돌봄 노동자의 월급은 2015년 기준 4650NIS(한화 약 120만원)로 매년 9일의 명절휴가와 2주의 휴가가 제공된다. 노동자들은 보통 돌봄의 대상인 노인과 단 둘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용주의 가족은 안식일[6]인 주말에만 방문하였다.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간 불평등한 관계를 구조화하는 바인딩시스템 하에서, 노인돌봄노동자로서 채용되는 필리핀 이주자들은 작업장과 거주지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사적공간에 놓여 있어 이중적으로 주변화와 배제를 경험하기 쉽다. 우선, 인터뷰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체류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두려워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이스라엘 체류 기간이 51개월을 초과한 사라의 경우 일주일에 3일은 노인의 2살짜리 손자를 돌보고, 하루 3시간의 집안 청소를 하는 등 돌봄노동자로서 정해진 업무 외의 일을 수행해야 했지만, “노인이 내 비자이기 때문에 일이 힘들고 부당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고용주와 동등한 공간 이용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제약되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방문한 대부분의 집에는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평소 공간 이용에 제약을 받았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가정은 대부분 코셔[7]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6) 안식일(Shabbath)은 금요일 해질녘에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휴일로, 대부분의 운송수단과 상점, 학교,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

7) 코셔(kosher)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규정에 적합한 정결한 음식을 일컫는데(신명기 14: 3-21, 레위기 11), 큰 특징 중 하나가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것이며,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다. 세속적 성향의 유대인들 중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코셔는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들이 고용주의 집 부엌을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특히, 필리핀 이주자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는 코셔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의 집에서의 음식섭취 제한은 필리핀 이주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대표적인 억압의 경험이다. 사실상, 고용주의 집은 국가와 고용주의 권력에 의해 일상적으로 통제되는 공간으로, 필리핀 돌봄 노동자들은 '친밀한 타자(intimate others)'(Chang and Ling 2000; Lan 2003)로서 존재한다.

입주 돌봄 노동자인 필리핀 이주자들의 일상은 주중-작업장, 주말-아파트의 특수한 시공간적 패턴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필리핀 이주자들은 일요일부터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 이어지는 주중에 고용주의 집에 체류하는 대신 금요일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에 해당되는 안식일에는 26시간의 무급휴가가 주어진다.[8] 별도로 숙소를 마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아파트를 임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그 이유를 자신들의 입주 근무 조건과 작업장 환경에서 찾고자 했다. 예를 들어, 제니퍼(35세, 여)는 주말에 가사노동에 동원될 것이 우려되어 고용주의 집에 남아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레비(30세, 남)의 경우, "마치 감옥에 있다 나오는 것 같다.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과 일주일 내내 있다 보면 우울해지기 때문에 단 몇 시간이라도 기분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필리핀 이주자에게 토요일은 황금 같은 시간이다.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말하며 고용주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주말에 잠시나마 '작업장'을 벗어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8) 이스라엘 법은 이주노동자들에게 36시간의 주말휴가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26시간의 휴가만 부여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노인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말에 서너 시간의 휴가만 허용되기 때문에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원하는 다른 필리핀 이주자에게 300NIS(9만원)을 지불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필리핀 이주자들은 이러한 대체인력을 '릴리버(reliever)'라고 부르며, 필리핀 이주민 사회의 대표적인 비공식 경제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3. 이주민 집거지의 형성과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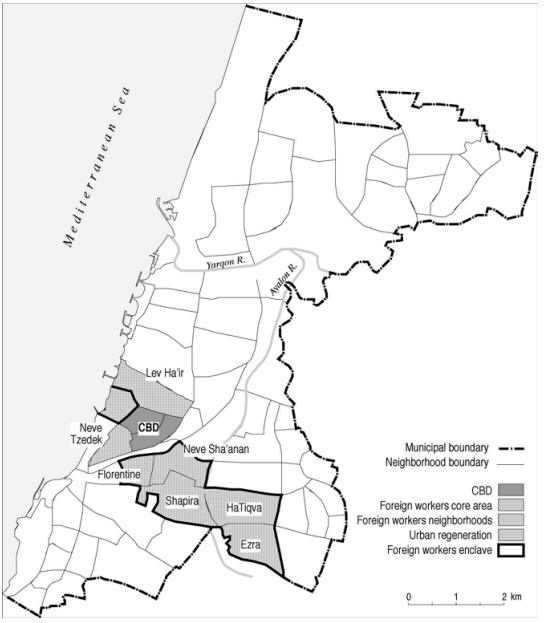
1) 텔아비브 네베셰아난

전형적인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었던 네베셰아난은 1990년대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어 집거지를 형성한 곳으로, 텔아비브 시에 속해 있으나 점차 주변 지역으로부터 고립되고 이질적인 공간으로 변모되어 갔다. 이 지역은 주중에는 한산하고 조용한 반면 공공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정지되는 안식일이 되면 주말휴가를 보내기 위해 돌아오는 외국인 거주자들로 붐비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 대비된 분위기를 형성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네베셰아난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위험한 도시슬럼지역'으로 가시화되고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수차례 발생했던 팔레스타인 자살폭탄테러사건 이후이다. 당시 상당수의 희생자가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체류자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네베셰아난은 위험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의 소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Hatuka 2010; Willen 2003). 이 사건 이후 네베셰아난은 이민경찰과 국경경찰의 단속, 추방 정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국경 공간'으로 형성되어 왔다.[9)]

2005년 이후 이 지역에 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네베셰아난은 더욱 더 주변화되고 타자화된 공간으로서 낙인화되었다. 2006년부터 유입되어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침입자(infiltrators)"로 간주된 난민신청자의 수는 59,634명으로 집계된다(Yaron, Hashimshony- Yaffe, and Campbell 2013: 147).[10)] 이스라엘

9) 원더스(Wonders 2006: 66)는 실제 지리적 국경으로부터 먼 장소에서 수많은 국경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경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수행될 것인지는 정부, 경찰관, 고용주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한다.

10) 2006년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입국한 초기 난민신청자의 대부분은 남수단 다푸르(Dafur) 출신이었으며, 국경을 건너는 순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위험한 "적국"



출처: Shachar and Felsenstein 2002: 51 Figure 3.3

〈그림 3〉 텔아비브 남부 이주민 거주분포

경찰청이 2012년 텔아비브 시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의 40%가 아프리카 난민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도한 뒤(McDonnel 2013), 인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주민들은 난민들의 추방을 호소하는 시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Ha'aretz 2012년 12월 21일). 네베셰아난을 점유한 외국인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이스라엘 시민뿐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는 필리핀 이주자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필자가 현지조사 중이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네베셰아난에서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성 범죄가 여섯 차례 이상 발생하게 되면서 특히 여성이 지배적인 필리핀 이주자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으며, 아프리

의 시민인 "침입자"로 대우받았다. 2007년에 주로 입국한 난민신청자는 에리트리아(Eritrea) 출신이었다. 2010년 12월 기준 전체 난민신청자의 58.4%가 에리트리아 출신이며, 24.8%가 수단 출신이다(Yaron et al. 2013: 148-149).

칸 '이웃'에 대한 적대감과 인종차별적 발언이 빈번하게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베셰아난의 아파트는 필리핀 이주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감시, 억압적인 작업장에서 일시적이나마 벗어나 해방감과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무대의 후면 영역"(Goffman 1959)으로 기능한다. 네베셰아난의 거주환경이 열악한데다 입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파트를 임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이주자들은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대하는데, 우선 네베셰아난은 텔아비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세가 저렴한데다 아파트 거주자 수의 제한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네베셰아난은 전체적으로 주택구역이지만 1993년에 개장한 텔아비브 고속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이 지역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중심으로 이주자들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어 주중에는 한산하던 네베셰아난은 주말이 되면 미용실, 동전세탁소, 환전소, 다양한 언어로 된 간판이 붙은 아프리칸 식당, 중국식당, 필리핀식당, 다국적 식품점, 야채가게, 정육점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들로 붐빈다. 필리핀 이주자들은 이러한 상점들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필리핀 이주자들 사이에서 주말에만 이루어지는 비공식 경제 활동을 통해 자급자족적인 서비스 영역을 발전시켜왔다(임안나 2015: 125-128).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흡인 요인들 외에, 이주자들이 지속적으로 네베셰아난에 유입된 데에는 '이주 연망'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필자가 현지조사기간에 만난 필리핀 이주자들은 이스라엘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이스라엘로의 이주를 결심했고, 대부분 이주과정에서 이주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브로커와 채무관계를 맺었다.[11] 이런 경우, 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입국

11) 이스라엘은 경력 및 나이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필리핀 여성들에게 선호되는 정착지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평균 $8,000의 높은 이주비용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이주자들의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 여부가 이스라엘로의 이주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에이전시와 브로커, 개인 연망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후 채무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브로커가 지정한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 브로커와 채무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자들은 개인 연망을 통해 네베셰아난의 특정 아파트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네베셰아난에 필리핀 집거지가 형성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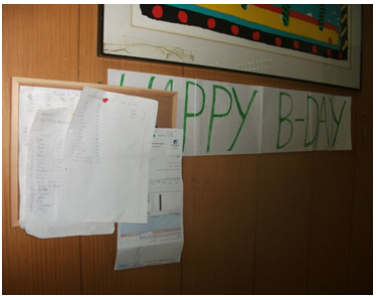
2) 공동거주공간으로서의 아파트 구성

네베셰아난의 아파트[12]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고 체류 지위가 불안한 필리핀 이주자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형태의 숙소로, 보통 4~5층 높이의 건물로 1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자들이 혼합되어 입주해 있다. 예를 들어, 리자 아파트가 속한 건물에는 대부분 필리핀 이주자들이 입주해 있지만, 5층과 1층에 이스라엘 가정이 한 가구씩, 3층 리자 아파트의 옆집에는 네팔 이주자들이, 4층에는 아프리칸 이주자들이 입주해 있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필자가 거주했거나 방문했던 아파트는 대체로 공통된 구조를 보였는데, 방 2개로 구성된 리자 아파트의 경우 큰 방에는 2층 침대가 두 개 놓여 있고 소파와 함께 접이식 간이침대가 3개 구비되어 있어 여러 명이 취침할 수 있고(〈그림 4〉), 다른 방에는 나무판자로 구획을 나누어 임의로 작은 방이 3개 만들어져 2인용 사이즈의 침대가 각기 놓여 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20개 이상의 플라스틱 의자가 쌓여 있고 노래방 기계와 대형 TV, 취침용으로 사용되는 긴 소파가 구비되어 있다. 거실의 벽에는 아파트 월세장부와 공지사항이 기재된 종이가 부착

형성되는 '이주산업' 속에서 필리핀 이주자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미시적 과정에 관한 내용은 필자의 다른 논문(Lim 2015) 참조.

12) 필리핀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플랫(flat)'이라고 부르지만 이 논문에서는 '아파트'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아파트는 한 아파트 건물(apartment)에 속한 가구 단위의 공간(flat)을 가리킨다.

〈그림 4〉 이층침대와 소파(리나 아파트)



〈그림 5〉 거실 벽에 부착된 공지문과 장부

되어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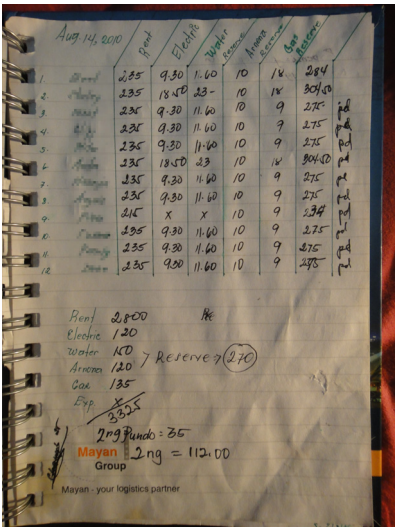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주자들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아파트 내에서만 통용되는 특정한 사회적 구조와 역할 범주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것이다. 네베셰아난의 아파트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현지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공식적인 임차인과 이 임차인으로부터 '침대'를 다시 임차하는 전차인(subtenant)으로 구성되는데, 보증금과 계약금을 지불하고 현지 집주인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이 임차인은 거주자들 사이에서 '바알하바이트'로 불리며 아파트 공동체의 리더이자 관리자로서의 역할 역시 수행한다. 예를 들어, 리자는 입국하자마자 소속되었던 아파트에서 나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충분한 수의 '플랫메이트(flatmate)'를 확보한 뒤, 저축해 둔 현금 4000달러를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함으로써 바알하바이트가 될 수 있었다. 즉, 아파트의 생성과 유지는 바알하바이트와 여러 명의 전차인들 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바알하바이트라는 히브리어는 '집주인(landlord)'를 의미하지만 이주자들은 고용주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며, 이 단어를 아파트로 가져와 실제로는 집주인이 아닌 필리핀 임차인을 '집주인'이라 부른다. 이것은 고용관계가 가진 위계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실제로 아파트에서 바알하바이트는 새로운 구성원을 수용하거나 내보내는 문제에 있어 독점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아파트 내의 대소사 역시 대부분 바알하바이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

아파트 구성원들은 아파트 이용패턴에 따라 '리브인'과 '리브아웃'의 두 범주로도 구분된다. 주말에만 아파트를 이용하는 입주 돌봄노동자들(live-in caregivers)은 아파트 내에서 '리브인(live-in)'으로, 아파트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출퇴근 돌봄노동자들(live-out caregivers)은 '리브아웃(live-out)'으로 범주화된다. 필자의 경우 비록 노인돌봄노동자는 아니었지만 아파트에 상시 거주했기 때문에 '리브아웃'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아파트 안에서는 '아파트 밖에 거주'하는 리브인 노동자들이 '리브인'이라고 불리고 '아파트 안에 거주'하는 리브아웃 노동자들은 '리브아웃'이라고 불리는 등 노동시장의 범주구분이 전복되어 사용된다. 대부분의 필리핀 이주자들은 입주 형태로 근무하는데다, 주중에는 비어 있다가 주말에만 점유되는 것이 아파트의 '정상적인' 거주패턴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중에 점유하는 리브아웃은 "일탈적인" 범주로 인식된다. 리브인과 리브아웃은 임대료를 동등하게 분담하지만 세금은 리브아웃이 리브인이 내는 돈의 두 배를 내는 것이 관례이다. 리브아웃의 수가 많아지면 세금이 많이 지출된다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리브아웃을 플랫메이트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세금을 걷는 날이 되면 리브인과 리브아웃 사이에 세금의 가격을 두고 종종 언쟁이 벌어진다.

네베셰아난의 아파트 임대료는 텔아비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기는 하지만 낙후한 시설과 열악한 거주환경을 고려하면 매우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아파트는 15~20평 규모로 방 2개와 부엌 달린 거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하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평균 월세가 2,800NIS(한화 약 85만원)이었다가 2013년으로 들어서면서 3,500~4,000NIS(약

105~120만원)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0년 8월 기준 아파트 장부(〈그림 6〉)를 살펴보면, 2800NIS의 월세를 비롯하여 전기세, 물세, 가스비, 아르노나(시청에 내는 세금) 등의 기타 세금을 12명의 플랫메이트가 균등하게 분담하고 있다. 다만, 목록 2번과 6번 거주자는 리브아웃이기 때문에 리브인 근무자가 내는 세금 액의 2배를 지불하였다. 이주 돌봄노동자의 급여일이 매달 10일이기 때문에 10일 이후 가장 가까운 토요일이 임대료와 세금을 걷는 날로 정해져 있으며, 이날만큼은 아파트를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플랫메이트들도 모두 모여 저녁식사를 거하게 먹는다.



〈그림 6〉 아파트 월세 장부(리자 아파트, 2010년 8월)

4. 공간공동체의 형성과 경계 만들기

이 장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계가 뚜렷한 공간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아파트가 어떻게 사회적 의미를 가진 독특한 공간으로 변모되는지를 살펴본다. 연령, 성별, 종교, 출신지/언어, 혼인여부, 체류기간, 법적 체류지위 등 상이한 배경을 가지는 필리핀 이주자들이 필리핀인이자 노인돌봄노동자로서 공통의 지위와 이해, 그리고 아파트라는 장소 소속감을 바탕으로 특수한 사회질서와 규범을 가

진 공간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이러한 '아파트'가 구성원들 간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주자로서 마주하는 현실과 위기를 협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 유지되는 공동체공간임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거주자들이 적극적인 공간 전략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아파트를 안전하고 자율적인 공간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1) 정기적인 주말모임을 통한 네트워킹

필리핀 이주자들은 아파트라는 공동거주공간을 기반으로 주말마다 주기적으로 실천되는 공동체 활동, 특히 저녁식사, 생일파티, 계모임의 의례적 행사를 통해 공동체공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우선, 주말마다 열리는 공동 저녁식사모임은 아파트 거주자들이 반드시 참석하는 행사로, 주중에 고용주의 집에서 음식섭취를 통제 받는 필리핀 이주자들이 필리핀 음식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필리핀 이주자들 사이에서 필리핀 음식이 가지는 의미는 특히 이주자들의 제약적인 근무지 환경에 의해 더욱 부각된다. 반면에, 모든 거주자들이 모여 필리핀 음식을 나눠먹는 주말 네베셰아난의 아파트는 어떤 음식도 허용되는 유일한 장소이며, 고국을 떠난 이주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친밀한 공간이 된다. 따라서 주말저녁식사는 이주자들의 주말휴가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주말마다 주기적으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한 주간의 소식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교류할 수 있다. 바네사 아파트의 예를 들어보면, 플랫메이트들은 보통 데이오프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아파트에 도착하는데, 주중에 인터넷채팅을 통해 미리 정해진 메뉴를 요리하기 위해 일찍 도착한 사람들이 네베셰아난 주말시장에 나

〈그림 7〉 주말 저녁식사 모임(리나 아파트)

가 장을 본다. 장보기를 마치면 모든 플랫메이트가 식탁에 둘러 앉아 마늘, 양파 껍질 벗기기, 야채 썰기, 고기 다듬기 등의 작업을 하고 두세 명 정도가 자원해서 요리를 도맡아 한다. 새로운 플랫메이트가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기존 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저녁식사 참여를 통해서이다. 실제로 짧은 휴가기간 동안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녁식사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플랫메이트들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필리핀 음식을 공유하는 행위는 단순히 고국의 향수를 달래는 역할을 넘어서서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 결속력을 만들어 내거나 그것을 재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며,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계를 구분 짓는 도구로도 이용된다. 그레이스 아파트에서도 음식을 나누는 행위의 중요성과 관련된 사례가 관찰된다. 리사가 아파트에서 요리한 음식을 그녀의 친구가 사는 다른 아파트로 들고 가서 먹기 때문에 바알하바이트인 그레이스와 항상 갈등이 있어왔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샌디에 따르면, 리사가 부엌에서 공동물품인 가스와 주방기구를 사용한 것은 눈

감을 수 있지만 주말에 아파트에서 요리한 음식을 플랫메이트가 아닌 외부인과 먹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식사모임에 빈번하게 불참하는 것 역시 공동체의 통합과 결속력이라는 규범적 가치에 위배되는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필자도 리자 아파트에 체류하는 동안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다른 아파트를 방문하기 위해 주말 저녁식사 모임에 빠질 때마다 일부 거주자들은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저녁식사모임이 토요일에 딱 한 번뿐이라는 이유를 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곤 했다. 특히 아파트에서 연장자이자 바알하바이트인 리자의 파트너 존은 저녁식사 모임 참여를 플랫메이트의 의무이자 아파트 공동체의 가치로 강조하면서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할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누군가가 아파트에서 주말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나 그녀가 머지않아 아파트를 떠날 전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식사는 아파트 내 중요한 공동체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저녁식사가 규칙적인 모임이라면, 생일파티는 비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저녁식사 못지않게 중요한 주말 행사로서 생일파티가 열리는 경우 정기적인 저녁식사모임을 대체한다. 친족 연망이 부재한 이스라엘에서 이주자들은 아파트를 기반으로 상호부조적인 지원 연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생일파티는 아파트 구성원들 간의 호혜적 관계와 결속력을 형성시키면서 '내부자'로서의 플랫메이트와 '외부자'로서의 손님 사이의 경계 긋기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대부분의 필리핀 이주자들은 일 년에 한 번뿐인 생일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고 지인들을 초대하는데, 플랫메이트들은 파티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생일상 차리는 데 기여함으로써 '유사가족'의 역할을 수행한다. 파티 준비 돕기는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플랫메이트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난이 가해지기도 한다. 생일 맞은 사람의 플랫메이트들은 상 차리기와 접대 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 선물로 음식, 현금 등을 증여하여 상차리기에 공헌함으로써 핵심적인 부조집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위를 기반으로 플랫메이트들은 비록 자신이 생일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 자신의 친구들을 한두 명 정도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초대받은 손님인 외부자들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은 공간적 접근성(spatial proximity)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빨루와간(paluwagan)'이라고 불리는 계모임을 조직한다. 지불에 대한 법적 제제가 결여된 상황 속에서 빨루와간은 보통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소규모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는데 (Besley, Coate, and Loury 1993: 805), 비록 소액이지만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는 모임이라는 특성상 빨루와간은 이미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주로 결성된다. 필리핀 이주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은행이나 대출서비스 이용 등 경제적 자본에의 접근이 제한받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다른 필리핀 이주자들에게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금리가 높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다.[13] 이런 점에서, 특정 아파트에 소속되어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이주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바네사 아파트에서는 바알하바이트인 바네사가 플랫메이트 11명과 함께 빨루와간을 조직하여 매주 수금을 하고 제비뽑기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수금된 돈을 나누어 준다. 노인돌봄노동자들은 주말마다 고용주로부터 휴가비로 받는 현금 100NIS(약 3만원)를 가지고 매주 빨루와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여자가 12명이므로 한 번의 빨루와간은 3달이 소요된다. 플랫메이트라 하더라

13) 필리핀 이주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월급용 우체국 계좌 외에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도 미등록체류자이거나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빨루와간 참여가 제한되거나 수혜 순서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다.

매주 규칙적으로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빨루와간은 단순히 현금축적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메이트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매주 규칙적으로 현금을 교환함으로써 기존의 관계를 유지, 강화시키는 기능과 동시에 어려운 때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넬리의 경우 필리핀에 있는 아버지가 암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병원비를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바네사에게 순서를 바꿔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순서의 참여자가 순서를 바꿔주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여 송금할 수 있었다.

위에 언급한 의례적인 주말 행사들은 내부적으로 이질적인 아파트 거주자들을 결속력 있는 공동체로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사회적 지원망이 결여된 이주자들이 아파트를 기반으로 일차적인 상호부조집단으로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2) '익명화'를 통한 아파트의 요새화

아파트 거주자들은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아파트를 '자율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요새화된 공간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의 확보라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아파트의 외부 공간에 내재된 위험요소는 첫째, 국가와 고용주의 권력이 침투된 통제의 공간으로서의 고용주의 집과 억압적인 근무환경, 둘째, 네베셰아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폭력과 각종 범죄, 셋째, 잠복중인 이민경찰과 '레포터'의 일상적 감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류 사회의 '보는 눈'과 도덕적 감시 등의 네 가지로 정리되는데, 이주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삶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 '비일상적인' 혹은 '일탈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는 안식처를 아파트에서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아파트의 요새화를 이주자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과 외부 환경에 공간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적대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파트가 어떻게 요새화되고 '안전한 공간'의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뉴만(Newman 1973)은 '영역화(territoriality)'야말로 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어공간이 표방하는 침범 불가능한 주거환경 성립에 가장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사적공간인 모든 집에는 출입문이 있지만 네베셰아난 아파트의 문은 단순히 거주공간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통제의 의미를 넘어서 이주자들에게 유일한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이주자들의 안전에 대한 욕망은 아파트의 철문에서 한눈에 읽혀진다.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문을 별도로 설치하고 문의 개방과 폐쇄를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을 규제하고자 한다. 생일파티나 특정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의 초대를 받지 않는다면 외부인들이 아파트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말에 다른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집에 들이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의 바알하바이트와 다른 플랫메이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파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는, 주말에만 아파트로 돌아오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요 정보제공자인 루시의 사례는 이주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규제함으로써 아파트를 어떻게 영역화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바네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루시는 동시에 리자 아파트에도 침대를 임대했는데, 그것은 단지 리자 아파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네베셰아난에서 필리핀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루시는 리자 아파트 거주자인 이모 조이를 통해 조이뿐 아니라 존과 제니퍼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빌려준 돈을 제

때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리자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물론 리자 아파트에는 월세만 냈을 뿐 바네사 아파트에서 생활했으며, 리자 아파트의 거주자로서 출입이 자유로워진 루시는 필요할 때마다 리자 아파트를 방문하여 세 명의 채무자로부터 모든 돈을 회수하였다. 리자 아파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 뒤 루시는 리자 아파트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았다.

〈루시인터뷰〉

제니퍼는 나한테 $1,500을 빌렸는데 다 갚는데 일 년이나 걸렸다. 그 일 년 동안 제니퍼와 실랑이가 잦았는데 리자 아파트를 자주 찾아갔지만 갈 때마다 채무자들이 없거나 문이 잠겨 있어서 돈을 받아내기가 정말 힘들었다. 차라리 그 아파트에 사는게 더 나을 것 같았다. 내가 입주자가 되면 집 열쇠도 받고 아파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니까.

실제로,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에 대한 확보는 불안정한 체류지위를 가지고 다소 위협적인 거주환경에 살고 있는 이주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사실상 이민경찰이 아파트를 급습할 때 유일한 방어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주자들은 아파트 문에 자물쇠를 안과 밖에 이중으로 달아놓는데, 이것은 아파트 안에 아무도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정보제공자들은 이민 경찰이 아파트에 찾아왔을 때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 것이 이민경찰에 체포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2009년 딸을 출산한 뒤에 미등록체류자로 3년 넘게 네베셰아난에 거주중인 그레이스 역시 이런 식으로 이민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그레이스 인터뷰〉

지난번에도 아래층 남자가 이민경찰에 잡혀 가는 장면을 베란다 창문 틈으로 목격했다. 그 당시에 경찰이 우리 집에도 왔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

니 괜찮았다. 이민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를 때 겁내서 문을 열지만 않는다면 안전하다. 난 숨을 죽이고 방 안에 숨어 있었다. 아래층 남자는 아마 겁에 질렸던 모양이다. 심리적인 싸움이다. 하지만 난 그런 식으로 3년이나 잘 버텼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문단속(gating)'을 통한 물리적 공간통제뿐만 아니라 '비밀유지' 전략을 통해 아파트를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 아파트에서는 모든 거주자들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규칙이 존재하는데, 필자가 필드워크를 위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때마다 기존 거주자들은 다른 거주자들의 사적 정보를 '외부인'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여권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것, 여권을 미소지한 경우 이민경찰이 아파트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다른 장소로 갈 것 등의 세부적인 규칙을 일러주었다. 이러한 비밀유지전략을 통해 아파트를 '익명화'함으로써 상호의존적으로 안전한 방어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아파트는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거주자들의 열망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 사적 주거공간의 의미를 넘어서서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폐쇄적인 영역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형성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공간의 확보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서로 사생활을 공유할 때만 가능하다. 리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존의 사례는 특정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안전한 공간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존의 사례〉

이스라엘에서 입주 노인돌봄노동자로 일한 지 7년쯤 되었을 때인 2012년 고용주가 사망했을 때 존은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대신 무비자로 이스라엘에 남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웠던 존은 한동안 이 사실을 플랫메이트들에게조차 숨기기로 했다. 다행히 존의 여자 친구와 필자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들이 주말에만 아파트에 머물렀기 때문에 존

은 한동안 자신의 '불법' 체류상태를 숨길 수 있었다. 하지만 곧 그는 안전을 위해 자신의 체류상태를 다른 거주자들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모든 거주자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끝낸 토요일 밤 존은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네베셰아난에 레포터(reporter)가 많기 때문에 규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고 주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위에서 존이 언급한 '레포터'란 이민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미등록체류자의 위치를 은밀히 파악하여 신고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이다. 정보제공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레포터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민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이주자가 네베셰아난에 최소한 6명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베셰아난에 일상적으로 잠복해 있는 레포터는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미등록체류자들에게 있어서 이민경찰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레포터들은 이민경찰에게 누군가의 위치를 알려주고 50달러의 수고비를 받는 '비윤리적인 행위' 때문에 필리핀 이주자들 사이에서는 '동족을 팔아먹는 배신자'로 표현되며 개를 의미하는 따갈로그 단어인 '아소(aso)'로도 불린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미등록체류자는 이민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illegal migrant)'라고 불리며 '배제와 추방의 대상'이자 혼란과 무질서의 부정적 함의를 지닌 존재로 상징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체류자'를 수용하는 아파트는 "일탈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합법-불법의 이분법적 범주는 아파트 안에서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며 심지어 아파트 안에서 미등록체류자는 '포섭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류 사회의 범주와 질서가 전복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파트는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이주자들이 지배적인 사회 질서와 윤리적인 시선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 역시 이주노동자로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혼외커플은 필리핀 이주민사회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이다.[14] 필자가 조사를 위해 입주한 모든 아파트에는 최소한 한 두 커플이 존재했는데, 특히 리자 아파트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전체 거주자 수의 절반 이상이 혼외커플이었다. 2개의 방으로 구성된 리자 아파트에서는 각 방에 커튼이나 판자로 벽을 만들어 세 개의 방으로 구분시키고 이렇게 구분된 작은 방은 커플이 임대한다. 예를 들어, 커플 관계인 엘라와 테리는 주말에 아파트로 돌아오면 작은 방에 놓인 2인용 침대를 함께 사용하며 부부처럼 행동하지만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행동한다.

네베셰아난은 특정한 시간대인 주말이 되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필리핀 이주자들이 모여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고향친구나 친인척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하지만 혼외관계를 가지는 이들에게 네베셰아난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영역에 '보는 눈'이 많은 위험하고 자유롭지 못한 감시의 공간이다. 따라서, 커플관계는 아파트 안에서만 유지되며, 아파트 거주자들은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려는 태도를 견지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올케인 코라와 함께 이스라엘에 입국한 뒤로 리자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제니퍼는 코라가 자신의 오빠 모르게 다른 남성들과 아파트 내에서 커플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제니퍼에 따르면, 자신의 오빠 역시 코라가 부재하는 동안 고향에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코라의 관계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유지되므로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14) 해외로 이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혹은 고국에 남겨진 이주노동자들의 배우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혼외관계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Arcinas, Bautista and David 1986; Constable 2003; Margold 1995; Pe-Pua 2003; Pingol 2010; Tsujimoto 2013).

없다는 것이다.

위 내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파트의 요새화는 이주자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공간적 반응으로 인한 결과이며, 따라서 아파트는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된 '다른 공간'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외부세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 거주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아파트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집단적인 점유와 공동체 규율과 질서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이 생성됨으로써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가 애매해진 새로운 공동체공간으로 구축된다. 필리핀 이주자들은 이러한 귀속공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경계 만들기 실천을 통해 아파트를 영역화하고 익명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아파트는 그것을 둘러싼 외부 공간에 대비되는 '안전한 공간'으로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로써 아파트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주말휴가용 숙소나 고국의 향수를 달래는 '친밀한 공간,' 사교의 공간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현실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리미널한 공간이기도 하다.

5. 장소적 정박(anchoring)과 이동(mobility)의 순환적 구성

4장에서는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필리핀 이주자들이 낯선 환경에서 다양한 공간적 실천을 통해 아파트를 친밀감과 귀속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체적인 공동체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외국인 단기체류노동자로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위협적인 조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아파트를 요새화된 쉘터(shelter)로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체류 지위와 한 아파

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이동성(mobility)에 주목하고, 이들의 '정박'과 '이동'이라는 상호배타적인 경험 모두가 아파트를 특수한 사회적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동등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우선, 동질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체 형성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이주자들이 아파트를 빈번하게 이동하는 원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특정 아파트에 정착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영구적인 정착 공간(permanent space for rootedness)'으로서 아파트의 구조를 드러낼 것이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필리핀 이주자들은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동안 아파트 간 끊임없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들은 아파트 간 이동을 '트랜스퍼(transfer)'라고 부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도 특정 아파트에 정착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출하곤 하였다.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은 애니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네베셰아난에서 트랜스퍼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옮기고, 옮기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다. 옮겨 다니는데 이미 지쳤다. 정말이지 한군데에 정착하고 싶다." 특정한 아파트에 정착하고자 하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이주자들은 '더 나은 아파트'를 찾아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에 이스라엘에 입국한 이래 5년간 총 일곱 군데의 아파트에 거주한 바 있으며 필자의 아파트 진입에 결정적인 매개 역할을 한 주요정보제공자 루시의 사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시의 사례〉

루시는 이스라엘에 입국하자마자 자신의 입국을 도운 에이전트이자 친구의 사촌인 마크의 아파트에 소속되었다. 그 아파트에 정착하고자 했지만 리브아웃으로 근무형태를 전환하면서 아파트에 매일 머무르다보니 함께 거주하는 다른 필리핀 여성과 그녀의 갓 태어난 아기가 만들어내는 소음이 싫어 이사를 결심했다. 고용주의 집 근처에서 만난 다른 필리핀 노동자의 소개로 두 번째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리브인인 다른 거주자들과 갈등이 생겨 그곳에서도 6개월 만에 이사를 나가야 했다. 루시는 다른 리브아웃 노동자들과 함께 한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했지만 집주인이 집세와 세금을 부풀려 받는 것 같다고 느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기로 했다. 루시는 새로운 아파트를 찾기 위해 그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아파트 정보를 구했고, 주말마다 그들이 소개한 여러 군데의 아파트를 둘러보러 다녔다. 루시는 결국 먼 친척인 조이가 거주하는 리나 아파트에 입주하여 7개월간 체류하다가 바알하바이트인 리나와 세금 문제로 다투고 플랫메이트인 로즈와 함께 로즈의 사촌이 거주하고 있는 바네사 아파트로 옮겼다. 바네사 아파트에서는 10개월 동안 체류하였으나 바알하바이트인 바네사가 필리핀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선뜻 바알하바이트 자리를 인수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거주자들이 뿔뿔이 헤어지기로 결정되면서 루시는 다시 마크의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루시가 아파트를 옮겨 다닌 주요한 원인은 대체로 아파트 공동체의 내부적 갈등이나 아파트 거주환경에서 기인한다. 특히,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아파트 구성원들의 갈등, 즉 바알하바이트와 임차인들, '리브인'과 '리브아웃' 사이의 갈등이 트랜스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매달 임대료와 세금을 걷는 날이 되면 의례적으로 리브인과 리브아웃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곤 하는데, 리브인이자 바알하바이트인 리나가 리브아웃인 루시가 아무도 없는 주중에 아파트에서 손빨래를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되었고 결과적으로 루시가 아파트를 떠나게 된 것이다. 전차인들의 사생활을 통제하고자 하는 바알하바이트의 태도 역시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바알하바이트와 전차인들 간의 갈등은 주로 아파트 소유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제니퍼의 설명에 따르면, 전차인들에게 아파트는 모든 플랫메이트들의 협력에 의해 유지되므로 "우리집"으로 인식되지만, 바알하바이트는 아파트를 "내 집"이라고 부르며 전차인들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한다. 테리의 경우 바알하바이트가 아파트 안에서 금주와 금연을 요구한데다,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제어하려고 해서 바알하바이트와 다투게 되었는데, 이때 테리가 할 수 있었던 대응책은 아파트를 떠나는 것뿐이었다.

구성원들 사이에 주말아파트를 둘러싼 상이한 개념과 이용 방식 역시 아파트를 갈등과 경합의 장소로 만든다.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있어 네베셰아난의 아파트는 주중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과 고립된 생활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시켜 '다른'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하는 휴가용 숙소이다. 하지만 '휴식' 자체에 중점을 두거나 '오락'에 중점을 두는 양립불가능한 아파트 이용방식은 종종 구성원 간에 갈등과 불화를 발생시키며 이것은 누군가가 아파트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일부 거주자들은 저녁식사 후 돈을 걸고 하는 카드게임이나 맥주 마시기, 노래 부르기 등의 오락 활동을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 반면, 주말에라도 숙면을 취하고 싶은 다른 거주자들은 밤새 소음에 시달려 불만을 토로하며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아파트라는 공간이 구성되면서 생산되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외에 동일한 아파트 공간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차이들 역시 아파트 공간이 가진 분열성과 이질성을 보여준다(Rodman 1992). 아파트는 이주노동자들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은 소망에서 만들어졌으나 결국은 내부적으로 생성된 양립 불가능한 차이와 위계구조로 인해 '커뮤니타스'라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은 좌절되며(St. John 2001), 현실 공간을 더욱 허구적으로 노출시키는 '환영의 헤테로토피아'(Foucault 1986: 27)로 나타난다.

아파트는 새로운 사회적 형태와 차이를 생산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필리핀 이주자들의 사회적 연망이 재편성됨으로써 출신지역, 언어, 종교 등 기존 정체성의 경계가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하는 공간이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의 전차인 확보에 더욱 관심을 두기 때문에 출신지 연고보다는 장소 소속감을 바탕으로 공간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균등한 수의 특정 지역

출신 이주자들이 분포된 리자 아파트의 경우 지역정체성에 의해 하위집단이 경계 지워지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계는 주말저녁식사 참여자의 범위와 일치한다. 바알하바이트인 리자는 일로코스 출신으로 주로 고향친구들과 당시 플랫메이트들과 함께 현재의 아파트 공동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 중 필리핀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아파트로 옮겨가는 경우가 발생하자 리자는 새로운 임차인들을 찾고자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타 지역 출신 이주자들이 유입된 것이다. 현지조사 기간 중, 리자 아파트의 거주자 12명 중 8명이 일로코스, 3명이 바기오, 한 명이 팡가시난 출신이었는데, 팡가시난 출신인 조이는 결혼 후 남편의 고향인 일로코스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일로코스 집단으로 귀속시키고자 노력했다. 아파트 내에서 일로코스 집단과 바기오 집단의 일상적인 갈등관계는 바기오 집단이 아파트를 떠나고 나서야 끝이 났다.

트랜스퍼 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이다. 위에 제시된 루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주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여러 군데의 아파트를 둘러보고 난 뒤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최종 정착지를 결정하였다. 필리핀 이주자들은 이주 초기에는 친인척이나 친구, 그리고 에이전시를 통해 입국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망을 통해 특정 아파트에 소속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와 작업장, 교회, 성당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연망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새로운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증가된다. 개인 연망은 아파트를 구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며 불확실성을 낮추어줌으로써 개별 이주자들을 폐쇄적이고 밀집된 아파트 공간과 연결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맥을 통한 아파트 이동이 선호되는 이유는 이러한 연망이 양측에 신뢰감과 안정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Granovetter 1993). 개별 이주자들을 특정 아파트와 연결시키는 데 있어 부각되는 개인 연망의 중요성은 앞에서 언급한 아파트 거주자들을

외부의 위협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요새공간으로서의 아파트의 성격에 내재되어 있다. 즉, 개인적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보다는 지인의 지인을 아파트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기존 거주자들의 안전감(a sense of security)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이동 과정에서 연망에 기반을 둔 신뢰감의 중요성은 필자가 현지조사 기간 중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부각되었다. 필자가 루시에게 리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루시는 바알하바이트에게 허락을 받고 연락을 준다고 약속했다. 약 2주 후, 루시는 주말에 아파트에서 이 문제로 회의가 이루어졌고 나의 입주가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루시에 따르면, 일부 거주자들이 필자가 필리핀인이 아닌데다 리브아웃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지만 루시가 필자의 신원을 보장한다며 설득했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하지만 6개월 후 루시가 바알하바이트인 리나와 다투고 아파트를 떠나게 되면서 리나는 필자에게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 건 루시가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이고 루시가 아파트를 떠났으니 당신도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트랜스퍼로 인한 장소 단절이 개인 연망의 재구성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주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아파트의 거주자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는 반면, 이사를 가게 되면 결속력 있는 협력관계를 맺어왔던 이전의 플랫메이트들과의 관계는 '느슨한 유대관계'로 재구성하거나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트랜스퍼를 결정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기존 플랫메이트들의 냉담한 태도이다. 기존 플랫메이트들은 누군가가 아파트를 떠날 경우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조이는 리나의 아파트를 떠나던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리나 아파트에 살았을 때, 리나는 나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내가 아파트를 떠난다고 했을 때 불같이 화냈다. 지금 우리는 적이나

마찬가지다.” 처음에 리자는 조이를 설득해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이가 결정을 바꾸지 않자 조이의 행동을 공동체를 배신하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간주하며 비난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단지 친밀한 결속관계를 맺어 온 누군가의 이탈로 인해 생긴 감정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탈로 인해 남겨진 거주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와 세금의 인상이라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안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리자 아파트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바기오 집단이 바알하바이트인 리자를 비롯한 일로코스 집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아파트를 떠났을 때 리자는 바알하바이트의 의무를 다하기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거주자를 모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없어 일인당 지불해야 할 임대료와 세금이 늘어나자 끈끈한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던 다른 일로코스 출신 전차인들의 불만이 높아져갔고, 결국 그 중 리차드와 에이미 커플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리차드와 에이미가 이탈하면서 남아 있는 다른 전차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자 점차 이탈자의 수가 증가하여 마지막에는 바알하바이트인 리자와 그녀의 파트너인 존 둘만 남게 되었다. 결국, 월세를 감당할 능력이 없던 리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으로 입주하게 되면서 리자 아파트는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까지 제시된 사례들은 아파트는 개별 이주자들의 끊임없는 유입과 유출로 구성되는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공간이며, 고정적이고 안정된 공동체가 아닌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공동체를 내포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필리핀 이주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독특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끊임없는 이동의 순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유장소’로서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정착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네베세아난의 아파트는 내부 규칙과 운영방침의 공통된 적용, 저렴한 주말 숙소의 기능, 시설 및 생활

용품의 완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호부조적 연망, 계약 없이 원할 때 떠날 수 있는 자유로움이라는 특징이 통용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체류 지위와 제한된 경제적 자본을 가진 필리핀 이주자들이 어느 아파트에 거주하든지 주말마다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이다. 실제로, 이주자들이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연망과 내부-외부의 경계를 그리는 양상은 입주 노인돌봄 노동자의 특수한 일상 패턴과 짧은 데이오프의 제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루시에 따르면, 주말에 24시간 동안 주어지는 짧은 휴일에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중에 하지 못했던 많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게 되는데다, 주말모임과 관련된 활동들은 대부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민 삶에 중요한 사회적 원조망과 안식처의 구축 과정에 있어 장소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아파트라는 공간이 이주자들의 장소애착과 분리로 구성되는 순환적 이동경험을 가능케 하는 일시적인 경유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주민들의 '트랜스퍼' 현상은 '정주' 패러다임 속에서 아파트라는 장소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그러한 장소가 가진 의미에 대해 재고하도록 한다. 즉, 아파트는 새로 입국한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초기 정착지이자 이들이 필리핀으로 귀국할 때까지 이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영구적인 정착지로서 이스라엘 이주 생활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므로, 정박과 이동 모두 필리핀 이주자들이 아파트를 경험하는 방식이자 아파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해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필리핀 노인돌봄노동자의 사례에

초점을 두고, 국경을 넘어 낯선 사회에 재배치된 계약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를 형성시키는가를 공간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았다. 입주 노인돌봄노동자로 유입된 필리핀 이주자들의 일상은 '주말-아파트'와 '주중-작업장'으로 재구성되며, 이러한 특수한 시공간적 패턴과 거주국에서의 주변적인 체류지위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삶과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아파트의 시간적 측면은 그것이 가진 공간성만큼이나 중요하다. 필리핀 이주자들은 언젠가는 고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아파트 거주기간 역시 일시적인데다 주말에만 일시적으로 점유되므로 아파트는 '한시적인' 또는 '흘러가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그곳을 거쳐 가는 수많은 이주자들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생산되는 구체적인 장소로 필리핀 이주자들에게는 '영구적인 정착지'로서 기능한다. 비록 개별 이주자가 경험하는 아파트는 잦은 이동에 의해 바뀔 수는 있어도 정착 공간으로서의 '아파트' 개념은 일종의 "구조"로서 지속되기 때문이다.

네베셰아난과 그곳에 밀집된 아파트들은 도시에서 배제된 동시에 도시에 뒤섞인 모호한 공간이다(Foucault 1986). 네베셰아난의 아파트는 안식일인 주말이 되면 모든 것이 정지되면서 한산한 바깥과 달리 축제분위기의 생동하는, 주류사회의 사회 질서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장소로 구성되며, 필리핀 이주자들이 잠정적으로 일상적 생활과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비일상적인 행위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리미널한 공간이 된다. 안과 밖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공간에서는 헤게모니적 담론과 질서를 전복하는 새로운 의미와 사회 질서를 재생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파트는 단일하고 동질적인 에스닉 공동체를 수용하는 독립적이고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다르게 경험되고 인지되는 다중적인 혹은 양립할 수 없는 의미들이 공존하는 이질적이고 파편화된 공간

이며,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된 공간인 듯 보이지만 외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정태성과 폐쇄성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가진 이주공간으로 형성된다.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30일, 논문심사일: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3일

참고문헌

임안나

2015 "이스라엘의 이주노동자 유입과 도시공간의 변화: 텔아비브 네베 셰아난의 이주민 엔클레이브 형성," 『지중해지역연구』 17(1): 101-133.

정헌목

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107-141.

Appadurai, Arjun

1995 "The Production of Locality," in R. Fardon, ed., *Counterworks: Managing the Diversity of Knowledge*, New York: Routledge, pp. 204-225.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Arat-Koc, Sedef

1989 "In the Privacy of Our Own Home: Foreign Domestic Workers as Solution to the Crisis in the Domestic Sphere in Canada,"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28: 33-58.

Arcinas, Fe R., Cynthia B. Bautista and Randolf S. David
1986 *The Odyssey of the Filipino Migrant Workers to the Gulf Region,* Quezon City: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Bakan, Abigail B. and Daiva Stasiulis
1997 "Foreign Domestic Worker Policy in Canada and the Social Boundaries of Modern Citizenship," in Abigail B. Bakan and Daiva Stasiulis, eds., *Not One of the Family: Foreign Domestic Workers in Canad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 29-52.

Batram, David V.
1998 "Foreign Workers in Israel: History and Theor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 303-325.

Besley, Timothy, Stephen Coate and Glenn Loury
1993 "The Economics of Rotating Savings and Credit Associ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4): 792-810.

Chang, Kimberly A. and L.H.M. Ling
2000 "Globalization and Its Intimate Other: Filipina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in Marianne H. Marchand and Anne Sission Runyan, eds., *Gender and Global Restructuring: Sightings, Sites and Resistan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30-47.

Cohen, Rina
1986 "Cinderella in the House: Definitions and Management of Deprivation, Feelings among Non-white Domestics," Ph.D. Dissertation, York University.

Constable, Nicole
2003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Divorce and Marriage: Filipino Wives and Workers," *Identities* 10: 163-180.

Cresswell, Tim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De Certeau, Michel
1984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aist, Thomas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ucault, Michel
1986 "Of Other Spaces," translated by Jay Miskowiec, *Dialectics* 16(1): 22-27.

Gielis, Ruben
2009 "A Global Sense of Migrant Places: Towards a Place Perspective in the Study of 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9(2): 271-287.

Glick Schiller, Nina and Noel B. Salazar
2013 "Regimes of Mobility: Imaginaries and Relationalities of Power,"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39(2): 183-200.

Glick Schiller, Nina and Ayse Çağlar
2009 "Towards a Comparative Theory of Locality in Migration Studies: Migrant Incorporation and City Scal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2): 177-202.

Goffman, Erving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London: Anchor Books.

Granovetter, Mark
199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1: 201-233.

Gupta, Akhil and James Ferguson
1997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

ference," in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33-51.

Hatuka, Tali
2010 "Urbanity, Immigration, and Everyday Life in Neve Shaanan," in *Violent Acts and Urban Space in Contemporary Tel Aviv*,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123-172.

Hochschild, Arlie and Barbara Ehrenreich
2003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Hondagneu-Sotelo, Pierrette
2001 *Domestica: Immigrant Workers Cleaning and Caring in the Shadows of Affluence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av La'Oved
2010 "Workers' Hotline Shadow Report on the Situation of Female Migrant Workers in Israel," paper submitted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48th Session, December 2010.

Kemp, Adriana
2010 "Reforming Policies on Foreign Workers in Israel,"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103, OECD Publishing.

Kemp, Adriana and Rebecca Raijman
2004 "Tel Aviv Is Not Foreign to You: Urban Incorporation Policy on Labor Migrants in Israel,"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1): 26-51.

Lan, Pei-Chia
2003 "Negotiating Social Boundaries and Private Zones: The Micro-politics of Employing Migrant Domestic Workers," *Social Problems* 50(4): 525-549.

Law, Lisa

2001 "Home Cooking: Filipina Migrant Workers and Geographies of the Senses in Hong Kong," *Ecumene* 8(3): 264-83.

2002 "Defying Disappearance: Cosmopolitan Public Spaces in Hong Kong," *Urban Studies* 39(9): 1625-1645.

Levitt, Schiller, and Nina Glick Schiller

2004 *Conceptud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Liebelt, Claudia

2011 *Caring the 'Holy Land': Filipina Domestic Workers in Israel*, New York, Oxford: Berghahn Books.

Lim, Anna

2015 "Networked Mobility in the Migration Industry: Focusing on the Case of Filipino Elderly Care-givers' Move to Israel," *Asian Women* 31(2): 85-118.

Low, Setha and Lawrence-Zúñiga(eds.)

2003 *The Anthropology of Space and Plac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Mahler, Sarah J. and Patricia R. Pessar

2006 "Gender Matters: Ethnographers Bring Gender from the Periphery toward the Core of Migration Studies,"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of New York* 40(1): 28-63.

Marcus, George E.

1998 *Ethnography through Thick and Thi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rgold, Jane A.

1995 "Narratives of Masculinity and Transnational Migration: Filipino Workers in the Middle East," in Aihwa Ong and Michael G. Peletz, eds., *Bewitching Women, Pious Men: Gender and Body Politics in Southeast Asi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ssey, Doreen
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cDonnell, Leah
2013 *The Balagan: Issues of Crime and State Interaction in South Tel Aviv*, Tel Aviv: African Refugee Development Center (ARDC).

McKay, Deirdre
2005 "Translocal Circulation: Place and Subjectivity in an Extended Filipino Community,"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7(3): 265-278.

Mundlak, Guy and Hila Shamir
2014 "Organizing Migrant Care Workers in Israel: Industrial Citizenship and the Trade Union Option," *International Labor Law* 153(1): 93-116.

Natan, Gilad
2012 The OECD Expert Group on Migration Report: Immigration in Israel 2011-2012,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Israeli Parliament, Nov. 2012.

Newman, Oscar
1973 *Creating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Oishi, Nana
2005 *Women in Motion: Globalization, State Policies, and Labor Migration in Asia*, Stand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Olwig, Karen Fog
2009 "A Proper Funeral: Contextualizing Community among Caribbean Migrants,"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5):

520-537.

Parreñas, Rhacel Salazar
2000 "Migrant Filipina Domestic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Gender & Society* 14(4): 560-581.

Pe-Pua, Rogelia
2003 "Wife, Mother, and Maid: The Triple Role of Filipino Domestic Workers in Spain and Italy," in Nicola Piper and Mina Roces, eds., *Wife or Worker?*,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Peralta, Maria Theresa S.
2004 "'From Where Are You Back Home?': Ethnography of Filipina Domestic Workers Spending Sundays at Statue Square," Ph. D. Thesis,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ingol, Alicia
2010 "Filipino Women Workers in Saudi: Making Offerings for the Here and Now and Hereafter,"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5(1): 29-41.

Rodman, Margaret C.
1992 "Empowering Place: Multilocality and Multivocality," *American Anthropologist* 94(3): 640-656.

Romero, Mary
1992 *Maid in the U.S.A.*, New York: Routledge.

Sassen, Saskia
1999 *Guests and Aliens*, New York: The New Press.

Semyonov, Moshe and N. Lewin-Epstein
1987 *Hewers of Wood and Drawers of Water: Noncitizen Arabs in the Israeli labor Marke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Shachar, Arie and Daniel Felsenstein
2002 "Globalization Processes and Their Impact on the Structure of

the Tel Aviv Metropolitan Area," in D. Felsenstein, E. W. Schamp, and A. Shachar, eds., *Emerging Nodes in the Global Economy: Frankfurt and Tel Aviv Compared*,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35-53.

Smith, M. P.
2001 *Transnational Urbanism: Locating Globalization*, Malden, MA: Blackwell

St. John, Graham
2001 "Alternative Cultural Heterotopia and the Liminoid Body: Beyond Turner at ConFest," *The Australian Journal of Anthropology* 12(1): 47-66.

Tsujimoto, Toshiko
2013 "Negotiating Gender Dynamics in Heteronormativity: Extramarital Intimacy among Filipino Workers in South Korea," *Gender, Place and Culture* 21(6): 750-767.

Willen, Sarah S.
2003 "Perspectives on Labour Migration in Israel," *Revue européenn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19(3): 243-262.
2006 "'No Person Is Illegal?': Configurations and Experiences of 'Illegality' among Undocumented West African and Filipino Migrant Workers in Tel Aviv, Israel," Ph.D.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Wonders, Nancy A.
2006 "Global Flows, Semi-permeable Borders and New Channels Inequality," presentation paper at the 2006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Montreal, Canada.

Yaron, H., N. Hashimshony-Yaffe and J. Campbell
2013 "Infiltrators or Refugees?: An Analysis of Israel's Policy towards African Asylum-seekers," *International Migratio*n 51(4): 144-157.

Yeoh, Brenda. and S. Huang
1998 "Negotiating Public Space: Strategies and Styles of Migrant Female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Urban Studies* 35(3): 583-602.

Yiftachel, Oren
2006 *Ethnocracy: Land and Identity Politics in Israel/Palestin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참고자료

Ha'aretz
2012 "Dozens of Israelis Protest against African Migrants in South Tel Aviv," 28 Dec. 2012.

〈Key concepts〉: Filipino caregivers, flat, space, boundary-making, enclave, community, Israel

Community Formation Based on the 'Weekend Flat':

Constructing a Migrant Space among Filipino Elderly Care-givers in Tel Aviv, Israel

Lim, Anna*

This article examines how Filipino migrant care-givers build their own society and maintain it in a new environment based on the flat. In spite of being marginalized and excluded as strange others in Israel, Filipino migrants regularly retreat from their employer's house to the flat in *Neve Sha'anan* and inscribe their presence there in unique ways. However, the flat forms a bounded exotic space in relational circumstances through an ongoing interaction with the wider society. For the migrants, the flat constitutes a 'space of belonging' with its own social order. They gather the flat as flatmates, developing a core support network in the absence of their family, and seek to form a coherent community through weekend events, overcoming internal differences. Significantly, the flat reinforces its boundary by constituting a fortified space with a shelter

* Lectur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function. With common desire for security and privacy against precarious and hostile environments, the migrants employ spatial strategies to shield the flat from the outside world, which enables them to enjoy freedom and autonomy even temporarily. The boundary of flat, however, is not strictly fixed but remains in constant negotiation.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flat is made up of the inflow and outflow of migrants and yet has a structure of settlement as a locus of belonging. In this way, the flat, as a nodal site in the mobile circuit, constitutes a new mode of the migrants' life world laden with a variety of meanings and contexts.